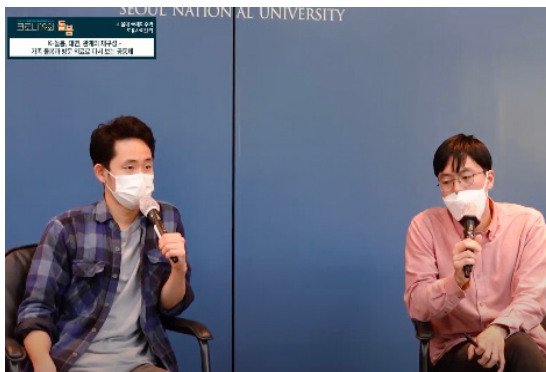


# 비대면 시대, ‘대면 돌봄’의 가치

‘영케어러’ 조기현 & ‘왕진의사’ 홍종원과의 대담 ...  
“따뜻한 말 한마디” 있는 돌봄 사회를 향해

- 돌봄 놓친 K방역...고립감 호소하는 사람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려면 관계 회복이 첫 걸음
- 돌봄 받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역할 있어...“삶의 보람 찾아주는 커뮤니티 케어 기대”

‘웨비나’란 신조어가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웹(web)과 세미나(seminar)를 합친 단어로, 줌(Zoom) 같은 화상 서비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세미나를 이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대표적 변화는 ‘비대면의 일상화’입니다. 화상 회의를 수시로 열고, 배달기사가 현관문 앞에 놓고 간 음식을 집어 들고, 심지어 친구들끼리의 근황토크도 줌으로 합니다. 직접 사무실로, 식당으로 나가지 않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 비대면 라이프는 일견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돌봄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람직할까요?



Youtube: [외부인사 초청세미나] 조기현 & 홍종원 - 대담 및 질의응답

2020년 11월 본 센터는 <K-돌봄, 대면,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영케어러’ 조기현 님과 ‘왕진의사’ 홍종원 님을 초청해 ‘가족 돌봄’과 ‘방문 의료’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비대면의 시대, 돌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조기현 님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이매진, 2019)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스무 살이던 2011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서 돌봐온 9년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케어러(Young Carer), 즉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와 관련한 글을 쓰면서 청년 돌봄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칼럼 ‘조기현의 몫’을 연재하고도 있습니다.

홍종원 님은 국내 유일 방문의료 전문의원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원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며 돌봄의 가치, 돌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의사입니다. 한겨레신문 토요일판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홍’이라는 연재물에서 열악한 돌봄 현장과 그에 대한 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용실에서 아버지가 비로소 웃으셨대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조기현 님의 아버지는 코로나 탓에 장기간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 생활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딱 한 번 환하게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용실 외출 덕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주고, 이러저러하게 이발해달라며 미용사와 얘기 나누면서 아버지가 몹시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은 사람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에서 옵니다.



홍종원 님의 환자 중 한 분은 그와 같은 동네 구립스포츠센터에 다닙니다. 지체장애와 당뇨가 있는 그 환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수영도 하고 탁구도 치면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주로 집에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홍종원 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환자 분을 찾아갔더니 살도 많이 찌고 힘들어하셨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다른 환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K-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봄은 재난 상황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한 방역 체계가 없어 많은 장애인이 집 안에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시설 폐쇄 혹은 면회 금지로 아픈 노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거나 시설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아픈 노인은 방치됐습니다.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는 취약계층 아동도 적지 않았습니다. K-방역은 ‘돌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홍종원 님은 “이러한 돌봄의 소외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여실하게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조기현 님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거론했습니다. 뱅골호랑이와 돌이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르는 소년 파이는 호랑이에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편 호랑이는 파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 돼줍니다. 파이는 호랑이와 상호작용하며 긴장과 동시에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조기현 님은 파이와 호랑이의 관계에서 돌봄의 진실을 엿봅니다. 그는 “흔히들 돌봄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돌봄이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영 케어러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자녀를 출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청년기에 이른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만혼 현상이 뚜렷하지만, 조기현 님은 “직접 만나본 한국의 영 케어러들은 핵가족 해체에 따른 파열음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혼해 혼자 된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서 청년기 자녀가 돌봄을 떠맡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 케어러는 고립감에 부딪힙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각종 복지지원 등 정보를 알려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현 님도 “형제가 있다면 돌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미움’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하겠지만, 나는 혼자여서 고립감이 심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나눌 대상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홍종원 님은 방문진료를 다니면서 고립감에 시달리는 독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가 만난 한 독거 환자는 때때로 근력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를 “보약”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진을 다녀보니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일 수도, 요양보호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는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관심과 도움을 줍니다. 홍종원님은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 받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며 “대면,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치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돌봄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리가 그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

2018년 정부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홍종원님은 “커뮤니티 케어는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환자가 연결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 핵심이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복지관 직원 등이 ‘아픈 분이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셔요. 한 번 와주실래요?’ 하며 방문진료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연결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님은 “‘아픈 사람은 쓸모 없다’는 생각부터 바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편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청소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조기현님은 “돌봄 대상자도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을 잘 살려서 이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돌봄은 폭탄처럼 떨어진다”

“돌봄은 폭탄처럼 떨어진다.” 대담 중에 조기현님이 한 말입니다. 연로하거나 질병이 있는 부모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돌봄 노동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고,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당사자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한창 사회 활동을 할 나이에, 혹은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기에 돌봄노동자가 돼야 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이고 손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돌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 케어러 문제와 돌봄 기반 고용안정망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루고 시설에 기대는 돌봄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에 기반한’ 돌봄 체계를 논의할 때입니다. 비대면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하는 현재, 오히려 돌봄은 ‘대면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글: 강지남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Communications Officer

본 행사 기획 및 진행: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디자인: 케이트 스몰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디자이너

### <<알림>>

본 브리프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2020년 11월 주최한  
<K-돌봄, 대면, 관계의 재구성> 대담을 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CTMS Brief 5호



@ctmssnu

www.ctms.or.kr

ctms.snu@gmail.com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본 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본 자료를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2동 307호